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며
경청은 지혜의 특권이다.

올리버 웬델 홈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며 경청은 지혜의 특권이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며 경청은 지혜의 특권이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며 경청은 지혜의 특권이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며 경청은 지혜의 특권이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며 경청은 지혜의 특권이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며 경청은 지혜의 특권이다.
